

VIP REPORT



■ 산업재해 예방이 경쟁력이다

- 일본의 산업안전 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의 시사점 -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장균, 주원, 이주량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03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산업재해 예방이 경쟁력이다

- 일본의 산업안전 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의 시사점 -

Executive Summary i

1. 산업안전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시점 1

2. 국내 산업재해의 특징 2

3. 일본의 산업안전 정책 동향과 기업 대응 7

4. 시사점 11

■ HRI 경제 지표 13

1. 산업안전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시점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기업 모두 불황 극복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정책의 무게중심은 경기 부양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맞춰져 있고, 기업들의 관심도 불필요한 낭비 요인 제거와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용 절감과 가시적 성과만을 집착한 나머지 자칫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소홀해지기 쉽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로 인한 산업재해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불행을 초래함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나아가 선진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일본의 산업안전 관련 정책 동향과 기업들의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국내 산업재해의 특징

(개요) 지난 20여 년간 국내 산업재해의 추이를 보면, 90년대 중반까지는 꾸준히 개선 추세였으나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7년 2.66%이던 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은 1995년 0.99%를 기록해 처음으로 1% 이하로 떨어졌고 1998년에는 0.68%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2008년도의 재해율은 0.71%로 나타나, **최근의 지난 10여 년간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이르는 재해 수준을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사망자수/근로자수×10000)은 90년대까지 3%대를 기록하다가 2000년대 들어 2%대로 진입하였고 2008년에는 1.80%를 기록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산업재해 보상금 지급액은 2003년 2조 5천억원 규모였으나 2008년에는 3조 4천억원 규모로 늘어나 5년 사이에 37.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접적인 손실까지 포함한 **경제적 손실액은 2008년도에 17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GDP의 1.67%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3조원 조금 넘는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그것의 5배를 능가하며 여기에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징) 첫째, 제조업 및 건설업의 산업재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8년도의 산업재해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전체 산업재해의 37.4%, 건설업이 21.4%를 차지하여 전통적인 재해 다발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해율 측면에서 보면 광업

(8.68)과 제조업(1.15)이 산업 평균(0.71)보다 높게 나타나, 특히 재해 예방 노력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 측면에서는 광업(274.96), 운수창고통신업(2.6), 건설업(2.06), 제조업(1.94)이 산업 평균(1.80)보다 사망 사고가 많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특성상 위험 설비가 많고, 다수 하청업체들의 참여에 의한 공사가 많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면서 위험 설비에 익숙한 숙련 인력의 이탈이 빈번하다는 점도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대규모 사업장의 재해가 감소하는 반면, 영세 사업장의 재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08년도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산업재해의 78.3%, 사망 재해의 58.9%가 50인 미만의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영세할수록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감률 측면에서도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 발생과 사망사고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영세 규모 사업장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재해 발생 업종인 제조업의 경우, 목재, 고무, 금속재료 등은 영세 규모 사업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규모가 영세할수록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여력이 미흡하다는 점이 재해 다발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셋째, 협착, 전도, 추락 등 이른바 후진적 재해로 일컬어지는 재해 유형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전도, 협착, 추락 등 3대 유형이 전체 재해의 5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해 유형인 전도사고의 경우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사망자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교통사고 유형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해의 대부분은 안전수칙의 무시, 안전지식의 미흡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도 최근 3대 재해 다발 유형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하여 사업장의 안전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3. 일본의 산업안전 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

일본은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산업재해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높은 기술력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1991년도에 재해율 0.32%, 사망만인율 0.39%를 기록했으나, 이후 해마다 감소하여 2007년도에는 각각 0.19%와 0.21%를 기록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정책적 노력) 첫째, 정부 차원에서 노동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중점 추진 대책을 정하고 체계적인 실행과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노동재해방지계획'을 5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다. 1958년(昭和33년) 제1차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이래, 현재 제11차 계획(2008~2012)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2007년 대비 재해자수의 15% 이상, 사망자수의 20% 이상 감소시키고 직업병의 증가세 둔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매년 7월 첫째 주를 '전국 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 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안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1928년(昭和3년) 처음 실시된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과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를 중심으로 각 사업장의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행사로서,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방지 활동을 유도하고 노사 양측의 안전의식을 고양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셋째, 정부와 기업 및 사회 각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산업안전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과 법령 입안 및 안전 기준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감독을 철저히 하며, 업종별 재해 방지 단체와 사용자 단체들은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한 세부 추진 대책 수립과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회 각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 대응) 첫째, 사업장의 작업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수칙의 숙지와 안전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작업 현장의 안전위생에 관한 부서별, 직급별 안전교육은 물론, 외부 전문가 초빙 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양으로 안전문화의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아사히 맥주는 외부 전문가 초빙을 통한 안전 교육의 정기적 실시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다.

둘째, 사업장별로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근로자는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자는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신일본제철은 작업 현장별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노사 참여의 노동안전위생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내의 안전 수준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의 제거에 노력하고 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은 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인식 하에, 안전설비 확충, 작업 공정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화약그룹은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투자하는 한편 종업원들의 재해 방지 아이디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평소에도 근로자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작업 효율성 저하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화학건설사인 치요다는 재해의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등 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4. 시사점

(정책 과제) 첫째, 산업재해의 체계적인 감소를 위한 범정부적인 중장기 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가발전 전략에 입각하여 예상되는 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의 통합과 조율을 통한 효과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둘째, 재해 다발 업종 및 재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재해 유형별로 위험도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연구를 강화하여, 이를 재해 취약 사업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산업안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게는 법제도 간소화와 신축적인 규제 정책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기업 과제) 첫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의 원천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작업 현장 이탈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한 간접적 손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노사 모두가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안전을 최우선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산업재해의 많은 부분이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안전 불감증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유사시의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상시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요청된다.

셋째,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와 근로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재해 다발 업종 및 영세 사업장의 안전설비 확충을 위한 지속적 투자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의 위험성 평가 등 예상되는 재해의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근무 시간의 신축적 운용 등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한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1. 산업안전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시점

-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상황임
 -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수익성 제고와 비용 절감이 기업들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기업들의 관심은 수익 창출과 비용 절감 등 당면의 불황 극복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실정임

- 재해 다발 업종에 대해 집중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산업재해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임
 - 지난 반세기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고도성장에 힘입어 선진국 문턱에 다가섰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수준은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먼 실정임
 - 특히 협착, 전도, 추락 등 이른바 후진적 재해 유형이 여전히 높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은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산업재해의 체계적인 감소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산업재해 발생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기술력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의 배경이 되고 있음
 -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도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재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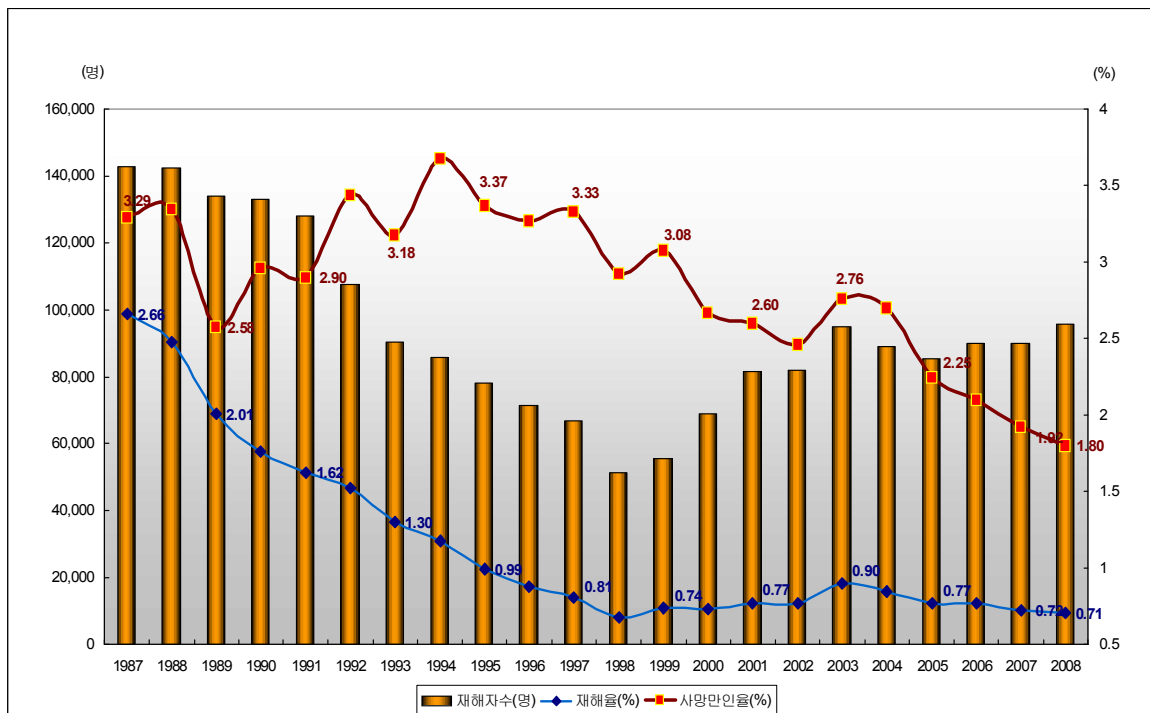
-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나아가 선진 경제 구축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함
 - 산업재해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불행을 초래하며,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본고에서는 일본의 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 사례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봄

2. 국내 산업재해의 특징

○ 국내 산업재해 개요

- 지난 20여 년간 산업재해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10여 년간은 발생 건수 및 재해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1987년 2.66%이었던 재해율은 1995년 0.99%를 기록해 처음으로 1% 이하로 떨어졌고, 1998년에는 0.68%까지 내려갔음
 - 하지만 2008년 재해율은 0.71%을 기록해 지난 10여 년간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재해자수 측면에서는 최근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사망에 이르는 재해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90년대까지 3%대였으나 2000년대 들어 2%대로 진입하였고, 2008년은 1.80%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임

< 국내 산업재해 발생 추이 >



자료 : '산업재해 발생현황' 각년도, 노동부

주 : 재해율=(재해자 수/근로자 수)×100, 사망만인율=(사망자 수/근로자 수)×10,000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도의 경제적 손실액은 17조 1천억원 규모로 GDP의 1.67%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임
 - 산업재해 보상금 지급액은 2003년에 2조 5천억원 규모였으나 2008년에는 3조 4천억원으로 5년 사이에 3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현장 이탈로 인한 직접적 손실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등 간접적 피해를 초래하여 기업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함
 -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3조원 규모¹⁾임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5배를 능가하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추이 >

(단위 :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적 손실액 ²⁾	124,090	142,995	151,288	158,188	162,114	171,094
산재 보상금	24,818	28,599	30,257	31,638	32,423	34,219
GDP (명목)	7,671,137	8,268,927	8,652,409	9,087,438	9,750,130	10,239,377
경제적 손실액 비중	1.62	1.73	1.75	1.74	1.66	1.67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최근 국내 산업재해의 현황(2008년)

- (업종별) 재해자수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전체 산업재해의 37.4%, 건설업이 21.4%를 차지하여 전통적인 재해 다발 업종으로 나타남
 - 재해율 측면에서 보면 광업(8.68)과 제조업(1.15)이 전체 평균(0.71)보다 높게 나타나, 재해 발생에 취약한 업종으로 나타남
 - 사망만인율 측면에서 보면 광업(274.96), 운수창고 통신업(2.6), 건설업(2.06), 제조업(1.94)이 전체 평균(1.80)보다 높은 사망재해 다발 업종으로 나타남

1) 산업연구원, '06년도 제조업부문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수출 차질액 조사 결과(2007.6)에 의하면 2006년도 생산 차질액은 3조 324억 원, 수출 차질액은 20.6억 달러로 추정됨
 2) 경제적 손실액은 산재보상금 등 직접적 손실과 함께 숙련기술자 손실에 따른 비용, 기업이미지, 납기 차질,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간접적인 손실액을 포함. 하인리히 방식에 의한 추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직접손실액의 5배로 추정

<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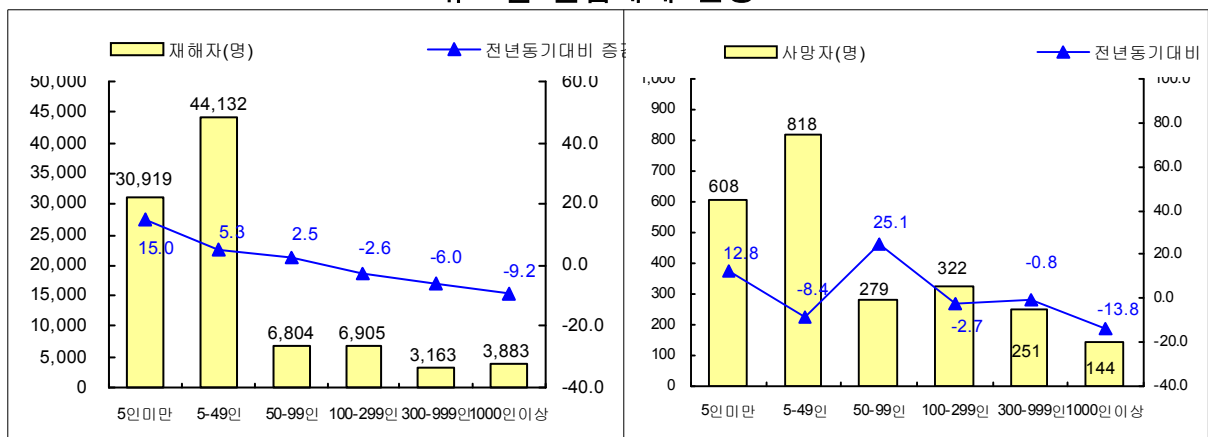
(명, %, %P, P)

구 분	2008. 12월말			전년 동기			증 감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총 계	13,489,986	95,806 2,422	0.71 1.8	12,528,879	90,147 2,406	0.72 1.92	5,659 16	-0.01 -0.12
광 업	15,275	1,326 420	8.68 274.96	16,105	1,593 436	9.89 270.72	-267 -16	-1.21 4.24
제 조 업	3,103,942	35,819 602	1.15 1.94	3,095,377	34,117 605	1.1 1.95	1,702 -3	0.05 -0.01
건 설 업	3,248,508	20,473 669	0.63 2.06	2,887,634	19,050 630	0.66 2.18	1,423 39	-0.03 -0.12
전기가스 수 도 업	54,479	99 7	0.18 1.28	53,984	121 6	0.22 1.11	-22 1	-0.04 0.17
운수창고 통 신 업	703,249	4,739 183	0.67 2.6	697,833	4,736 166	0.68 2.38	3 17	-0.01 0.22
기타산업	6,364,533	33,350 541	0.52 0.85	5,777,946	30,530 563	0.53 0.97	2,820 -22	-0.01 -0.12

자료 : '08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노동부

- (규모별)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전체의 78.3%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 규모 사업장이 산업재해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도 재해자수는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1,426명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전년대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영세 규모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



자료 : '08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노동부

- (유형별) 재해 발생 형태로는 전도, 협착, 추락 등 3대 재해가 전체의 55.5%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가장 많은 재해 발생 유형인 전도의 경우,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전체 재해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추락, 낙하·비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재해 유형별 현황 >

(단위 : 명)

구분		총계	재해 유형								
			전도	협착	추락	총돌	낙하·비래	절단	교통사고	과다동작	기타
2008. 12월말	계	86,072	18,527	15,250	14,027	7,279	8,670	6,615	5,345	1,896	8,463
	사망자	1,448	99	104	468	55	102	6	287	0	327
	부상자	84,624	18,428	15,146	13,559	7,224	8,568	6,609	5,058	1,896	8,136
전년 동기	계	78,675	16,231	15,881	11,834	12,202	6,565	4,707	3,659	1,426	6,170
	사망자	1,383	48	150	418	85	89	2	240	0	351
	부상자	77,292	16,183	15,731	11,416	12,117	6,476	4,705	3,419	1,426	5,819
증감	계	7,397	2,296	-631	2,193	-4,923	2,105	1,908	1,686	470	2,293
	사망자	65	51	-46	50	-30	13	4	47	0	-24
	부상자	7,332	2,245	-585	2,143	-4,893	2,092	1,904	1,639	470	2,317

자료 : '08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노동부

○ 국내 산업재해의 특징과 문제점

- (중소 사업장의 개선 효과 미흡)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및 건설업의 산업재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가장 많은 재해 발생 업종인 제조업의 경우, 재해율(1.15), 사망만인율(1.94) 모두 각각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 내 재해 다발업종으로는 목재, 고무, 요업, 금속재료 등의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주요 원인임
-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숙련 인력의 이탈이 빈번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 재해 다발 업종 (제조업 중분류) >

(단위 : 명, %)

구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제조업 전체	3,103,942	35,819	602	1.15	1.94
식품제품제조업	186,003	2,338	49	1.26	2.63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	7,144	342	5	4.79	7.00
목제품제조업	40,430	1,201	6	2.97	1.48
고무제품제조업	50,966	829	14	1.63	2.75
유리제조업	27,243	384	10	1.41	3.67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33,103	507	17	1.53	5.14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 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16,211	5,876	88	2.72	4.07
금속재료제품제조업	59,433	1,156	29	1.95	4.88
선박건조 및 수리업	134,699	2,375	45	1.76	3.34

자료 : '08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노동부

- (후진적 재해의 반복적 발생) 협착, 무리한 동작 등 일부 유형의 재해자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대부분의 유형에서는 재해자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재해 다발 유형인 전도, 추락, 낙하·비래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최근에는 교통사고에 의한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정책적인 재해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의 세부적인 개선책 미흡으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

< 사고 유형별 발생 추이 >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85,794	79,691	77,916	79,676	78,675	86,072
협착	19,238	17,395	16,557	16,649	15,881	15,250
전도	16,373	15,159	15,071	16,305	16,231	18,527
추락	12,799	11,676	10,814	11,687	11,834	14,027
충돌	10,193	9,371	9,125	10,908	12,202	7,279
낙하·비래	8,183	7,343	6,454	6,632	6,565	8,670
절단	3,534	3,829	4,087	4,574	4,707	6,615
교통사고	2,887	2,834	2,673	3,358	3,659	5,345
무리한 동작	7,000	7,149	6,535	3,131	1,426	1,896
기타	5,587	4,935	6,600	6,432	6,170	8,463

자료 : '산업재해 현황' 각 연도, 노동부,

3. 일본의 산업안전 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

○ 일본의 산업재해 개요

- 일본은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등 모든 지표에서 산업재해가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며,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재해 수준을 자랑하고 있음
 - 재해율로 보면 90년대 초반에 이미 0.2%대로 진입하였고, 이후 해마다 감소하여 2007년도는 0.19를 기록하여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
 - 특히 사망재해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있어, 1991년도에 0.39였던 사망만인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07년에는 0.21을 기록하고 있음
 - 일본에서의 재해 평가 지표는 재해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도수율³⁾과, 재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강도율⁴⁾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 일본 산업재해 주요지표 추이 >

(단위 : 명, %)

연도	취업자수 (만명)	총계	재해자수(휴업4일 이상)				재해지표	
			재해율*	사망만인율*	사망자수	업무상질병자	도수율	강도율
1991	6,369	200,633	0.32	0.39	2,489	11,951	1.92	0.17
1992	6,436	189,589	0.29	0.37	2,354	10,842	2.03	0.16
1993	6,450	181,900	0.28	0.35	2,245	9,630	2.07	0.18
1994	6,453	176,047	0.27	0.36	2,301	9,915	2.00	0.20
1995	6,457	167,316	0.26	0.36	2,414	9,230	1.88	0.19
1996	6,486	162,862	0.25	0.32	2,363	9,250	1.89	0.16
1997	6,557	156,726	0.24	0.32	2,078	8,557	1.75	0.16
1998	6,514	148,248	0.23	0.28	1,844	8,574	1.72	0.14
1999	6,462	141,055	0.22	0.29	1,992	7,817	1.8	0.14
2000	6,446	139,974	0.22	0.29	1,889	8,083	1.82	0.18
2001	6,412	140,149	0.22	0.28	1,790	7,984	1.79	0.13
2002	6,330	132,339	0.21	0.26	1,658	7,502	1.77	0.12
2003	6,316	132,936	0.21	0.26	1,628	8,055	1.78	0.12
2004	6,329	132,248	0.21	0.26	1,620	7,609	1.85	0.12
2005	6,356	120,354	0.19	0.24	1,514	8,226	1.95	0.12
2006	6,382	121,378	0.19	0.23	1,472	8,369	1.90	0.12
2007	6,412	121,356	0.19	0.21	1,357	-	1.83	0.11

자료 : 후생노동성, '노동재해동향조사' 각 연도

주(※) :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은 국내 산업재해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

3) 도수율=(노동재해 사상자수/연근로시간수)×1,000,000

4) 강도율=(노동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

○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 (노동재해방지계획) 일본은 5년 단위로 노동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중점 대책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직장 내 위험의 체계적 감소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및 각종 대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체계로, 5년 단위로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정부 차원의 노동재해 방지를 위한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체계적인 감소를 지향함
 - 1958년(昭和33년) 산업 현장의 재해 방지를 위한 제1차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이래, 현재 제11차 계획(2008~2012)을 추진 중임

< 참고 > 제11차 노동재해방지계획 (2008~2012)

- 계획기간 내 목표

- 재해자수에 대해서는 2007년 대비 15% 이상 감소 실현
- 사망자수에 대해서는 2007년 대비 20% 이상 감소 추진
- 근로자의 건강 확보 대책 추진으로 직업병 유소견자 증가 추세에 제동

- 주요 추진 내용

- 자율적인 안전위생활동의 촉진 ⇒ 위험성 측정, 환경 정비, 정보 공유화 등
- 특정 재해 대책 ⇒ 기계재해, 추락재해, 교통노동재해, 폭발화재재해 등
- 노동재해 다발업종 대책 ⇒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별 세부 대책 추진
- 직업성 질병 등의 예방 ⇒ 분진장애 방지, 요통 예방, 소음장애 방지 등
- 석면 장애 예방 ⇒ 전면금지 철저, 이직자의 건강관리 등
- 화학물질 대책 ⇒ 화학물질에 의한 노동재해 방지, 화학물자 관리 등
- 정신건강 대책 및 과중 노동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 산업보건활동 활성화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안전위생관리 강화 ⇒ 중소기업장, 취업형태 다양화, 고령노동자 등의 대책
- 효율적 시책 추진 모색 ⇒ 노동안전 연구, 관계기관과 연계, 효과 분석 등

- (전국 안전주간) 자율적인 산업재해 방지 활동 추진을 유도하며 폭넓게 일반의 안전의식 고양과 안전 활동 정착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음
 -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를 실시 주간으로 정하고 6월 한 달을 준비기간으로 하여,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에 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있음
 - 1928년 처음 실시된 이래 한 번도 중단 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해마다 슬로건을 정하여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과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은 물론 노동조합, 경영자단체 등이 협력하여 안전 활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있음

- (유기적 연계 강화) 산업안전보건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노동재해방지협회와 사용자단체 등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
 - 후생노동성은 노동관계 법령을 책정, 개발, 각종 시책의 기획, 입안 등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대책과 감독을 추진함
 -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업, 화물운송업, 임업, 광업 등 주요 업종별 노동재해방지협회가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일본경영자단체연맹(日經聯), 일본상공회의소, 일본자동차공업회 등 주요 사용자단체들도 노동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대응

- (안전의식 고양 및 안전교육 철저) 사업장의 작업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수칙 숙지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부적절한 작업 방법, 기계의 오작동 등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의 정착에 주력함
 - 연간 계획에 따라 직급별, 부서별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전문가 초빙을 통한 안전 강습회 등으로 안전 의식 제고에 주력하고 있음
 - 아사히맥주의 경우, 외부 강사 초빙 등을 통한 안전 담당자의 연수와 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음

- **(관리 체제 구축) 노사가 합동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재해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음**
 - 사업장별로 법령에 근거하여 안전위생체제를 구축하고 안전위생 관리자 선정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응한 실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음
 - 근로자는 산업안전을 위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자는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있음
 - 신일본제철의 경우, 노사 참여의 노동안전위생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업 현장 별로 위험성 평가와 자체 점검을 통해 안전위생 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

-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사업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근로자의 근로 환경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
 - 종업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은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작업공정 개선, 안전설비 확충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노후 설비의 결함 등 물적 요인의 불안정한 상태를 개선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현장의 리스크 요인 제거에 주력하고 있음
 - 일본화약그룹은 연간 설비 투자액 중 안전설비 확충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의 작업 환경 개선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

- **(근로자 건강관리에 역점) 근로자의 심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업장 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의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음**
 - 근무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육체적 건강 장애, 정신적 건강문제 등 근로자의 건강 확보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둠
 - 평소에도 전문의에 의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면담, 근로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한 건강 증진 방안에 대한 지도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화학건설사인 치요다는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정신 건강에 대한 이상 징후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주력하고 있음

4. 시사점

○ 정책 과제

- 산업재해의 체계적 감소를 위한 범정부적인 중장기 정책체계 구축이 요청됨
 - 해마다 고귀한 인명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특히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입각한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예상되는 재해 분석과 이에 대응한 선제적인 재해 예방 대책 수립이 요청됨
 -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산업안전 대책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범정부 차원의 조율과 점검이 필요함

- 재해 다발 업종 및 재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를 강화해야 함
 - 전통적인 재해 다발업종인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는 재해 유형별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기법 개발과 대책의 사업장 확산에 노력해야 함
 - 특히 재해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안전교육의 정기적 실시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 업종별 재해 다발 유형에 대한 예방 대책과 노동안전 확보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함

- 산업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 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함
 - 산업안전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소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설비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연한 법제도 적용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자발적으로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기업 과제

- 산업재해 예방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 전환

-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경영 활동임
- 산업안전이 중시되는 기업 문화의 정착이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근로자의 생산 효율성 제고와 애사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

- 노사의 안전의식 고양 및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후진적 재해의 많은 부분은 안전수칙 위반이나 안전교육의 소홀 등 노사 양측의 안전 불감증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됨
- 사업장별 특성을 감안한 각종 재해에 대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관리 점검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안전설비 확충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투자 지속

-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설비의 지속적인 확충과 작업 공정의 개선 등으로 잠재적인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
- 근로 형태의 다양화, 생산 현장의 위험 요소 증대 등에 대응하여 근무 시간의 신축적 운영으로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생산 효율성 제고를 추구해야 함

-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

-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취볼 때 건강 증진 프로그램 마련으로 잠재적 재해의 예방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최근 업무상 스트레스 등 정신적 건강 문제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추세임에 따라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허만울 연구위원 (3669-4127, myhur112@hri.co.kr)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2007	2008(E)				2009 수정전망	
			상반기	3/4분기	4/4분기	전체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	5.0	5.3	3.8	-3.4	2.5	-2.2	
	최종소비지출 (%)	4.7	3.1	1.7	-2.4	1.3	-2.5	
	민간소비 (%)	4.5	2.9	1.1	-4.4	0.5	-2.8	
	총고정자본형성 (%)	4.0	0.3	1.4	-8.4	-1.9	-3.7	
	건설투자 (%)	1.2	-1.2	-1.3	-6.1	-2.7	1.8	
	설비투자 (%)	7.6	1.0	4.7	-14.0	-2.0	-11.5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	60	-53.5	-85.8	75.2	-64.1	11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47	-68	-79	15	-133	66
		수출 (억 \$)	3,715	2140	1,152	931	4,223	3613
		증가율 (%)	(14.1)	(20.4)	(27.3)	(-9.9)	(13.6)	(-14.4)
		수입 (억 \$)	3,568	2208	1,231	915	4,353	3,547
		증가율 (%)	(15.3)	(29.7)	(43.0)	(-9.0)	(22.0)	(-18.5)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5	4.7				2.8	
	실업률 (%)	3.2	3.2				4.0	
	국제유가(Dubai, \$)	68	94.29				55	
원/\$ 환율 (평균, 원)		929.0	1,103.36				1,250	